

직장인 일상회화 완전정복 1단계

- 영어가 쉬워지는 회화 기초패턴편

Script

리스닝 인트로

문제를 듣고 가장 적절한 답을 고르세요.

I don't know how to use this copier.

- A. That was so easy. Thank you.
- B. No, I don't know how to do it.
- C. Just click this green button.

이 복사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네요.

- A. 그거 정말 쉬웠어요. 고마워요.
- B. 아뇨,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
- C. 그냥 이 초록색 버튼 누르시면 되요

[이 과의 학습목표]

1. I don't know + 의문사의 문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말할 수 있다.
2. 오늘의 문장: "I don't know how to use this copier."

강의 보기 - Main Dialogue

Young: I don't know how to use this copier.

Young: 이 복사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네요.

Lisa: Just click this green button.

Lisa: 그냥 이 초록색 버튼 누르시면 되요.

Young: Oh. That was so easy. Thank you.

Young: 아, 이거 꽤 쉬운걸요? 고마워요.

Lisa: You're welcome.

Lisa: 천만에요.

강의 보기 - Small Talk

점심식사 후 동료들과 모여서 이런 저런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 동료가 Young에게 가장 자신 없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.

Dialogue - 1

Lisa: Do you have anything you can cook well?

Lisa: 요리 잘하는 거 뭐 있니?

Young: Nothing. I don't know how to cook.

Young: 없어, 나 요리할 줄 몰라.

오랜만에 운동 좀 해보겠다고 멋진 운동복을 입고 친구와 함께 헬스장을 찾았다. 하지만
뭘 알아야지……

Dialogue – 2

Young: I don't know how to use this exercise equipment.

Young: 이 운동기구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.

Lisa: Let me show you how. By the way, I like your sweatshirt.

Lisa: 어떻게 하는지 보여 줄게. 그런데, 운동복이 멋지다.

친구들과 오랜만에 라이브카페를 찾은 Young. 음악을 좀 한다고 인정 받은 Young에게 친구들은 피아노 한번 쳐보라고 독촉한다. 그러자 자존심이 상했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조그만 목소리로 말한다.

Dialogue – 3

Young: I'm sorry. I don't know how to play the piano.

Young: 미안. 나 피아노 칠 줄 몰라.

Lisa: Come on. You can play the guitar. That's enough.

Lisa: 왜이래, 너 기타 칠 줄 알잖아. 그거면 충분해.

One more Tip!

버튼 누르기/돌리기

Click! Click! : 딸깍딸깍 누르는 소리나 누르는 행동

Push the button : 버튼을 누르다

Push the mouse : 마우스를 누르다? (X)

Turn up/down : 볼륨을 올리다/낮추다.

Turn on /off : 불을 켜다/끄다